

하루 14시간 참선...마지막 7일 용맹정진

상월선원 어떻게 운영되나

상월선원의 하루는 오전 2시에 시작한다. 세수를 하거나 씻을 일이 없기 때문에 새벽 2시에 일어나 가사를 수하고 죽비로 예불을 하게 될 것이다. 일어난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루 14시간 동안 스님들은 50분 정진, 10분 포행을 반복한다. 가로 길이가 30m 정도인 선원 내부를 한 바퀴 돌면 70m가량 된다고 한다. 스님들을 그곳을 하루에도 몇바퀴 켜 돈다. 비닐을 씌웠다고 하나 내부 온도는 바깥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포행 시간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 너무 추운 날에는 제자리 뛰는 것으로 체온을

높인다고 한다.

침묵 속에서 생활하면서 스님들은 꼭 필요한 말이 생기면 종이에 적어서 전하기로 했다. 하루아침에 말문을 닫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처음 한동안은 묵언이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걸 예정이라고 한다. 무의식중에 입을 때려다가도 묵언 팻말을 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길면 한 달 정도 목에 묵언 목걸이를 걸고 생활하게 될 것이다.

새벽 2시에 일어난 스님들은 오전 11시가 돼야 비로소 공양을 한다. 하루 첫 끼이자 마지막 끼이다. 배식구를 통해 오전 11시 도시락을 받아서 공양한 후 다음날 오전 7시 다시 내놓는 방식이다. 공양물에는 비싼 열대과일은 물론 사과나 배 같이 칼을 사용해 껍질을 벗겨야 하는 과일

은 제외된다. 선방 지대방에서 흔하게 보이는 다구나 원두커피도 제외됐다. 대신 티백과 봉지커피를 마실 수 있다. 이런 청구에는 풍요로움 속에서 검소하게 살아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동안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다면 이번 기회에 문화해택을 최소화해서 생활하자고 스님들은 뜻을 모았다.

퇴방하면 더 이상 스님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만큼 스님들은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도 가지 않는다. 통증이 심해 수행이 불가능 할 때는 선원 안에 마련된 칸막이 안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사를 만나서도 필담을 나눈다. 예외가 있다면 의사 진료 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경우다. 또 스님들이 여태 경험해보지 않는 수행환경으로 혼란을 겪어

대중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정진 대중 모두가 찬성한 경우뿐이다. 그마저도 치료가 끝나면 돌아와야 한다. 9명 중 한 명이라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지면 결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청규를 엄격하게 정했다.

스님들은 해제 이틀 전인 2020년 2월 6일(음력 1월13일) 죽비를 내려놓고, 말문을 틀 예정이다. 죽비를 내려놓기 일주일 전부터 7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용맹정진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힘차게 수행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2월7일(음력 1월14일)에는 3개월 동안 자물쇠를 굳게 채웠던 문이 열린다. 스님들 각자 사찰로 가서 이튿날인 2월8일(음력 1월15일) 해제법회에 참석하는 것을 끝으로 결제를 마무리한다.

대신심과 대용맹심으로 정진의 끈 놓지 않아야...

상월선원 기해년 동안거 결제법어

진제 중정예하

가지가지의 마음이 나면 만 가지의 진리의 법이 현전(現前)하고
가지가지의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 가지의 진리의 법이 없음이라.
마음은 만 가지 진리법의 주인이다.
이 마음을 깨달아 알 것 같으면 만법(萬法)에 임의자재(任意自在) 할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할 때에는 온갖 무명업식으로 인해 번뇌가 쉴 날이 없다.
중생들은 무한한 전생의 습기가 태산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대신심과 대용맹심으로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정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함이라.
우리가 밤을 새워가면서 용맹정진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 지니고 있는 이 마음을 밝히 만법의 당당한 주인이 되자는 데 있는 것이다.
상월선원에 대중들이 모여 두문불출(杜門不出)하며 동안거 결제에 임하는 것은 생로병사라는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인 생사



해탈의 대요견성(大悟見性)하기 위한 이라.
상월선원 대중들은 인연에 따라 종단의 여러 소임을 맡아 원만히 성만하고 또 다시 수행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결제에 임하고 있으니 수행자의 본분을 다한다 할 것이다.
필경에 진리의 일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무운생령상(無雲生嶺上)하고 유월낙파심(唯月落波心)이로다.
구름이 걷히니 산마루가 드러나고 밝은 달은 물위에 떠 있음이로다.

상월선원에 문이 닫히기 직전, 진제 중정예하가 직접 쓴 '상월선원' 현판 아래 상월선원 결제 대중들이 한 자리에 섰다. 3개월 뒤 스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간에 돌아올까 기다려진다. 사진 왼쪽부터 도림스님, 재현스님, 진각스님, 심우스님, 성곡스님, 자승스님, 호산스님, 무연스님, 인산스님. ①상월선원 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그는 총도감 해일스님. ②9명 스님이 생활할 텐트가 줄을 지어 있다. 그 앞으로 스님들이 정진할 좌복이 보인다. ③지대방에 있는 배식구는 상월선원이 바깥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다.

상월선원 안으로...

9개 텐트 침낭 좌복이 전부 바깥과 온도차 2~3℃ '냉골'

스님들이 추운 겨울을 지낼 상월선원은 비닐하우스에 가깝다. 폭설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철제 기둥을 세우고 비닐을 씌운 게 전부다. 외부와 온도 차가 2~3℃ 정도로 한겨울 불어오는 매서운 칼바람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선원 내부는 크게 세 공간으로 나뉜다. 스님들이 정진하고 잠도 자고 포행도 할 대중공간이 있고, 하루 한 끼 공양을 하고 자를 마실 수 있는 지대방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 정도다. 한 쪽에는 해우소가 연결돼 있는데, 외부에서는 볼 수 없다.
지난 11일 공개된 대중 공간의 내부는 역시 썰렁했다. 출입문 오른쪽에 걸린 '불(佛)'자가 크게 쓰인 액자와 죽비가 이

곳이 선방임을 보여준다. 바닥엔 장판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9개 텐트와 스님들이 앉아서 정진할 좌복을 놓으니 공간이 딱했다.
가로 1m, 세로 2m 크기의 텐트 안에는 얇은 매트와 침낭이 들어있다. 스님들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한다. 텐트 안에는 온습도계가 달려 있어 스님들이 추위를 가늠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가정용 체온계와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도 갖춰져 있다. 결제에 앞서 스님들 건강을 체크한 동국대 일산병원 관계자들이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는 스님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공한 것이다.
그곳에서 유일하게 세상과 통하는 곳

은 지대방에 있는 배식구다. 도시락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크기의 작은 창이 뚫려 있어 스님들은 공양을 전달해줄 스님의 손 정도는 볼 수 있을 것이다.
필담으로 간단히 의사를 전달하지만, 위급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럴 때 누르는 응급벨이 있다. 나 홀로 수행이란 있을 수 없듯이, 9명의 대중 스님들이 무사히 회향할 수 있도록 상월선원 밖에는 24시간 상주하며 생활하는 스님들도 있다. 스님들은 선원 밖에 있다가, 벨이 울리면 응급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선원으로 달려가기로 약속했다.
선원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네 모서리마다 달린 CCTV에는 스님들

생활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담는다. 9명 스님들이 선원에 입방하는 순간부터, 다시 문을 열고 나오기까지 전 과정을 빠짐없이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세 달 동안 쉴 틈도 않고 변화하는 모습이 여실히 담길 것이다. 이와 별도로 정진 대중 중 한 명인 도림스님이 스님들의 모습을 날마다 한 두 컷씩 카메라에 담는다. 결사의 기록은 해제 후 스님들 개개인에게 전달되지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혹 시라도 기회가 돼 다큐멘터리가 제작된다면 일반인들도 볼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하다.
하남=여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사진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시장통처럼 신명나게” 누구나 기도정진 동참

자승스님은 결제 전 상월선원이 고요한 가운데서 고요함을 찾는 곳이 아니라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함을 찾는 수행공간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추위와 배고픔 등 갖가지 욕망을 잊고 수행하는 것은 스님들 몫이니 밖의 대중들은 개의치 말고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정진하라는 것이다. 상월선원 법당을 아단법석의 장소로 이용해도 관계없다. 남대문시장을 방불케 할만큼 큰소리로 염불을 해도 좋고, 신나는 음악회를 열어도 좋다. 신명나게 기도하면서 신심을 키우고, 또 더 나아가 한국불교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순 없다.
상월선원 천막법당은 대중에게 늘 개방돼 있다. 누구든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 평일과 일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기도 정진한다. 매월 1회 오후 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정진도 하고, 봉은사 국악합주단과 사찰 합창단이 음성공양도 준비하고 있

다. 환풍스님은 동안거 내내 천막법당에서 사시예불과 오후 기도를 맡았으며, 조계사 부주지 원명스님은 조계사는 물론 봉은사, 수곡사, 진관사, 호암사 등 서울 경기지역 사찰 스님과 신도들과 함께 기도한다. 중앙신도회와 포교사단도 기도에 동참할 예정이다.
포교원 포교부장 가섭스님은 9명 선원 대중 스님들의 치열한 정진을 계기로 한국불교의 신심과 원력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전했다. 스님은 “수행이 포교라는 말이 이 순간 가장 적절한 것 같다”며 “외호대중과 함께 ‘포교가 수행’이란 마음으로 신심과 원력을 곧추세울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안거 결제 하루 전인 지난 10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위례 상월선원 정진대중과 외호대중 60여 명이 모여 천막법당이 아단법석의 장소로 만들겠다고 서원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은 “부처님 고행을 떠올리게 하는 상월선원 대중 스님들의 수행력으로 우리 종단에 새로운 수행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외호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여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우리 시대 대강백 무비 스님의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전 81권

국내 최초 81권 화엄경 강설 전권 완간!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은 ‘화엄경은 어렵다’는 편견을 뛰어넘은 책이다. 한자 경문에 음을 붙이고, 토를 달고, 새롭게 번역을 다듬고, 강설과 주해를 곁들여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강백이신 무비 스님의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을 통해 보살행을 실천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아 가자는 위대한 가르침을 만나 보자.



1-20권 각권 12,000원 / 21-60권 각권 13,000원 / 61-81권 각권 14,000원

『대방광불화엄경 사경』 전 81권 방대한 화엄경 모두 사경(寫經) 가능!!

우리 시대 대강백 무비 스님이 안내하는 사경 수행의 길

경전의 왕이라 불리는 『대방광불화엄경』 81권을 완벽해 내며 현대불교사에 한 획을 그은 무비 스님은 이어 『대방광불화엄경 사경』 전 81권을 완간하였다. 이로써 방대한 분량의 화엄경을 모두 사경(寫經)할 수 있게 되었다. 『대방광불화엄경 사경』은 80권본 화엄경에 대승보살의 실천행을 설하는 「보현행원품」을 더한 81권으로 모두 8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 권 단위로 묶어 세트로 판매한다.



실차난타 한역, 무비 스님 한글 번역, 각 세트 100,000원(전 8세트)

1-81권 1세트 정가 1,054,000원 ▶ 완간 기념 할인가 94만원

『대방광불화엄경』 강설과 사경 대작본사로 최상의 공덕을 쌓으세요.

담양뉴스 02)765-1251